## 어린이 책꽂이

▲엄마랑 둘이서=아빠 없이 자라는 한부모 가족의 딸인 '해나'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며, 둘뿐이지만 해나와 엄마가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밝고 건강하게 그린다. '누구와 사느냐보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주제를 제시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시공주니어·9000원〉

▲나무를 껴안아 숲을 지킨 사람들=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여섯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을 만들어 왔는지 소개했다. 공동체가 잘못된 개발과 무분별한 인간의 활동으로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현지인들의 노력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이야기한다. 〈웅진주니어·1만원〉

▲아주 특별한 우편배달부=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꾸민 동화다. 1888년 미국 뉴욕주 올버니우체국에 떠돌이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집배원들은 개에게 '오우니'란 이름을 붙여주고 동료처럼 아꼈다.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눈 오우니의 일생을 통해 동물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어린이작가정신·8500원〉

▲수학 천재는 바로 너!=멸종 위기에 처한 당나귀들이 숫자와 셈을 배운다는 이야기 속에 사칙연산의 원리를 담아낸 수학 동화다. 책 곳곳에 등장하는 '문장으로 쓰인 생각하는 수학 문제'는 계산형 문제처럼 빨리 답을 내 놓길 재촉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보도록 했다. 〈봄나무·1만1000원〉

▲스티커 토끼=아이들을 쉽게 낙인 찍지 말고 자유롭게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동화. 스무 마리의 아기 토끼들을 잠시 돌보게 된 할머니 토끼는 스티커에 엄마 토끼가 일러준 각각의 토끼의 특징을 적어놓지만, 스티커가 바람에 날려 없어진다. 〈책속물고기·8000원〉

▲한자영웅-청룡왕 동해 1=중앙m&b가 '과학영웅'에 이어 펴낸 학습만화 시리즈. 흥미진진한 만화를 통해 한자의 조합 원리가 되는 부수에 대해 자연스럽게 터득ㅎ게 하고, 부수와 기본자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한자를 의미와 연결고리를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앙m&b주니어·1만500원〉

▲샐러드 먹고 아자!=엄마를 위해서 샐러드를 만들려고 하는 소녀 마리와 그런 마리를 도와주는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다. 동물들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정말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낸다. 아이의 마음과 동물들의 마음이 재미있게 표현됐다. 〈한림출판사·9000원〉

▲여우와 아이=프랑스의 유명 영화감독 뤽 자케의 영화 '여우와 아이'를 원작으로 한 그림책. 한 소녀가 야생 여우와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렸다. 소녀는 야생 여우와 친구가 되는 데 성공하지만 여우를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다 오히려 여우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서 우정의 참 의미를 깨닫는다. 〈상상톡·1만2000원〉

# 뭐! 태양의 빛깔이 흰색이라고?

### 행복한 물리여행

### 최준곤 지음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릴 때 태양을 붉게 그릴까? 하지만 과학자들은 태양은 흰색이라고 단정한다.

고려대 물리학과 최준곤 교수가 신간 '행복한 물리여행'을 통해 왜 우리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태양이 실제는 흰색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태양은 흰색이다. 햇빛은 지구에 들어서면서 매우 긴 공기층을 지난다. 이때 공기에 포함된 산소, 질소, 먼지 등 각종 미세한 입자는 햇빛 중에서 파란색 쪽의 짧은 파장을 잘 튕겨낸다. 그래서 남아있는 빨간색 부위의 긴 파장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일출이나 일몰을 볼 때 태양이 노란색이나 오렌지색 또는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용광로를 예로 들면 쉬워진다. 달궈진 쇠는 1000℃ 정도에서 붉은색을 띠다가 3000℃에 이르면 주황색으로 바뀐다. 또 5000℃가 넘으면 흰색으로 보인다. 흰색은 8000℃까지 유지되다가 온도가 더 높아져 1만℃에 이르면 파란색을 띠기 시작한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랗게 변하게 된다.

태양 표면은 대략 6000℃에 달한다.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면 희게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구급차가 다가올 때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높아지다가 구급차가 멀어지면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낮아진다. 이 때문에 사이렌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들어보면 눈을 감고도 구급차가 다가오는지, 멀어지는지 알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 때문이다. 도플러 효과란 소리를 내는 음원과 관측자의 상대적 운동에 따라 음파의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이다.

야구장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를 재는 스피드건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장치다. 스피드건은 레이더파를 공에 쏘고, 공에서 반사된 레이더파의 진동수 변화를 측정해 공의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 밖에 고양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는 일이 거의 없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일정한 속도에 이르게 되면 4개 다리를 펴서 표면적을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표면적이 넓어지면 저항력이 커지고 저항력이 커지면 더 천천히 떨어지게 돼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다.

스카이 다이빙을 할 때 사람들이 팔다리를 활짝 펴는 것도 같은 원리다. 공기와 부딪히는 단면적을 최대로 만들어 안전하게 착지하기 위해서다.

최준곤 고려대 교수는 신간 '행복한 물리여행'을 통해 일상 속 재미있는 물리의 비밀을 알려준다. 사진은 투명인간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가 예로 든 투명 물고기 '고스트 글래스 캣피시'

저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물리학의 개념을 일상에서 일어나는 43가지 현상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자동차 일렬 주차의 비밀, 얼음보다 무거운 물, 검은 옷 입고 사막걷기, 투명인간 만들기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이다미디어·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술고래가 아닌 풍류를 아는 酒黨

### … 술나라 이야기

### 정헌배 지음

'대한민국 술 박사 1호'로 불리는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가 술에 대한 교양 필독서 '정헌배 교수의 술나라 이야기'를 펴냈다.

책은 술에 대한 기본상식부터 좋은 술의 가치와 원료, 술 빚는 법과 유통 과정, 명주의 조건까지 모두 담았다.

"참다운 우리 술의 세계화"가 인생의 목표라는 저자는 프랑스 파리 제9대학에서 술 마케팅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3년에는 직접 인삼주 전문 제조업체인 '정헌배인삼주가'를 설립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술에 대한 것들을 에세이로 풀어내며 '멋쟁이 풍류 주당'이 되는 법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술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와 품격을 되새길 줄 아는 건강한 음주법과 음주문화를 소개하며 3부에서는 우리 술의 미래 전망까지 다루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잘못된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한 것.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것과 술을 제대로 아는 것이 결국 연결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저자는 "술을 많이 마시는 '술고래 주당(酒黨)'이 아니라 술의 맛과 멋을 제대로 음미할 줄 아는 '멋쟁이 풍류 주당'이 되자"고 제안한다.

〈예담·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도시인의 상처받기 쉬운 여린 감성

### 눈송이와 부딪쳐도 …

### 신달자 편저

국내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 76편을 엄선해 소개한 명시 컬렉션 '눈송이와 부딪쳐도 그대 상처 입으리'가 출간됐다. 신달자 시인이 지난 2007년 11월부터 두 달간 중앙일보 '시가 있는 아침' 코너에 연재한 시 60편에 단행본을 위해 새로 추가한 16편을 함께 묶은 것이다.

'눈송이와 부딪쳐도 그대 상처 입으리'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초승달에 걸터앉아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너에게 가려고 나는 강을 만들었다' 등 총 4부로 구성된 시평집은 '사랑' '그리움' '가족애' '희망'이라는 핵심 주제를 노래한다.

특히 박목월, 서정주, 고은, 신경림, 황동규 등에서부터 정호승, 안도현, 김용택, 함민복, 김선우, 손택수, 김경주까지 우리 문단의 원로와 중견, 주목받는 젊은 시인들까지 두루 소개하고 있다.

시평집 제목 '눈송이에 부딪혀도 그대 상처 입으리'는 황동규 시인의 시 '연필화' 중 마지막 구절로, 매서운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상처 받기 쉬운 여린 감성을 상징하고 있다.

단아하면서도 절제된 감성이 묻어나는 시처럼 아름다운 감상평은 신달자 시인의 다사다난했던 인생경험에서 우러나온 성찰로, 치열한 삶 속에서 삭막하게 변해버린 우리들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듯하다. 〈문학의문학·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세상 알려진 식물학 오류 바로잡기

### 파브르 식물 이야기

### 파브르 지음

파브르하면 곤충을 떠올리고 곤충학자 하면 파브르를 말할 정도로 '파브르 곤충 이야기'는 잘 알려진 책이다. 그럼 '파브르 식물 이야기'는 어떤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책은 전세계 각국에서 100년이 넘도록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랑받는 과학 고전중의 하나이다.

열정적으로 곤충을 연구했던 생물학자 파브르의 저서 '파브르 식물 이야기'가 깐깐한 해설과 사실적인 그림, 사진자료를 곁들여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책은 기존 책에서 오역되거나 오류가 포함된 부분을 수정해 출간됐다. 원본은 분량이 너무 많고 다소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한 해설을 덧붙였으며 현대 식물학에 비춰 당시의 오류 또한 바로 잡았다.

특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파브르가 곳곳에 내보였던 종교적 신념을 그대로 살려 그가 내려고 했던 목소리에 더 가까이 가도록 했다.

'자연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파브르의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펼쳐지는 위대한 식물의 탄생과 사랑,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역사가 색다른 감동을 준다.

한편, 동물학자 시턴이 자연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북미대륙에서 야생 동물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 펴낸 고전 '시턴 동물 이야기'도 새롭게 구성돼 함께 나왔다. 〈사계절·1만5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